

텔레비전은 결코 책의 적이 아니다

광범한 독자층에 큰 영향력 행사... '이용'과 '제휴' 방안 모색해야

유은영
자유기고가

텔레비전이 광범위한 수용자들에게 책을 알리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책과 텔레비전의 관계는 아직으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

출판계에서는 책을 제대로 알리는 데는 TV보다 라디오가 더욱 효력이 있다는 말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이 말의 의미는 책을 라디오를 통해서 제대로 토론되고, 읽혀지고, 팔리지만, TV라는 작은 스크린의 한순간의 그래픽 안에서는 그 존재가 없어져버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TV문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정이 잘못되고 부정확해 보일 수도 있다. 텔레비전은 이따금 얼빠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문학을 다루는 TV의 역량이 강한 인상을 주어왔다. 출판계에서는 텔레비전이 피상적이고 엉뚱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문학의 문화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출판계는 TV의 힘, 전통, 그리고 영향력을 생각해야 한다. 일례로, 이름없던 책이었던 오스왈드 윈디(Oswald Wyndi)의 「생강나무(The Ginger Tree)」도 TV몰로 각색됨으로써 그 책을 알리고 판매하는 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출판계 종사자들은 텔레비전이 책을 더 광범위한 수용자에게 도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책과 텔레비전은 여전히 상호배타

적인 개념이다. 독서행위는 길고 고독한 노력이 필요한 행위이다. 독서는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경험이며, 독서하는 사람이 멈추어진 시간이라는 마법의 세계로의 여행을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개인적 즐거움을 주는 행위이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이 경험을 요약하게 만든다. 책으로 읽으면 4시간이나 걸릴 분량이 텔레비전에서는 단 10분만에 다루어질 수도 있다. TV는 개인적인 반응을 공동의 것으로 바꾸고, 본질적으로 창작성인 면보다 시각적인 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사적인 경험을 공적인 것으로 만든다. 텍스트는 스크린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변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기름과 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쉽지 않다. 텔레비전 문학은 차라리 번역문학과 유사하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의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사한 세계에서 감명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를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 위대한 예술이란 환원할 수 없고 복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책과 텔레비전은 결코 뜻맞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텔레비전이 정보를 알려주고, 교육하고,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다는 뜻이다. 이 영역은 틀림없이 광범위하다. 영국의 TV방송을 예로 들어보자. 'The Late Show'는 다른 어떤 예술작품보다 책을 많이 다룬다. 'South Bank Show'는 20세기의 위대한 작가들을 특별히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출판계는 텔레비전의 힘과 전통,

그리고 영향력을 생각해야 한다.

편집자들도 텔레비전이 책을 더

광범위한 수용자들에게 도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책과 텔레비전의 만남이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책을 쓰거나

출판하건, 혹은 그것을 텔레비전

문예물로 만들건, 책의 세계에서

우리는 같은 편이다.

'Bookmark'는 1년에 12편의 문학작품을 TV용 영화로 제작한다. 'Without Walls', 'Omnibus', 'Arena' 등의 프로그램도 작가를 중심으로 다룬다. 그러나, 그 영향력으로 볼 때 'Booker Prize'가 아직도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과학에 할당되는 방송시간과 비교해 보면 영국 TV방송이 책에 할당하는 시간과 관심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금년초에는 터키의 작가 야샤르 케말(Yashar Kemal)에 관한 영화가 제작되었다. 이것은 아나톨리아(Anatolia)에서 촬영한 드라마 다큐멘터리로 골든아워에 터키어로 방송되었다. 영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책의 판매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Guardian」지에 형편없는 서평이 실리는 결과

를 초래했다.

이는 분명히 텔레비전이 다루기에 부적절해 보이는 분야도 있음을 보여준다. 수용자들이 읽지 않은 여러권의 책에 대해 TV상에서 토론을 벌이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책들을 읽을 수 없었던 시청자들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때로는 상세한 내용으로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루어지는 책의 장점에 관해 토론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루어지는 책은 이슈를 제기하고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책의 유형이 제한된다. 텔레비전을 통한 책에 관한 토론은 이 두 세계의 어색한 관계를 가장 명백히 보여주는 예이다.

이에 대해서는 'Booker Prize' 만큼 적절한 예가 없다. 이 프로그램에는 6권의 책이 요약되고, 평가되고, 책과 관련된 주변상황이 소개된다. 그리고 이것은 텔레비전이므로 6권의 책중 수상작을 극적으로 공개하는 생생하고 흥미로운 이벤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로, 6권의 상이한 책에 대해서 생생하고 폭넓은 토론을 진행하고, 짧은 시간안에 그 책들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둘째로, 어떤 책들은 재미있는 이슈를 제기하거나, 토론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자체가 텔레비전에 맞지 않는다. 그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 중 반은 어떤 작품이 수상작인지 알고 있고 나머지 반은 알지 못한다. 수상작을

제로 사냥꾼

이탈로 칼비노 지음/전경애 옮김 / 4,500원

모라비아 이후 현대 이태리 소설계의 대표적 작가이자 포스트 모던 소설의 대표적 스타일리스트로 손꼽히는 칼비노 문학의 본격 소개. 환상과 극사실적 묘사를 통해 현대인의 정신과 내면공간을 파고든다. (현대문학選 1)

벌 목꾼

토마스 베른하르트 지음/김미혜 옮김 / 5,500원

페터 한트케를 능가하는 독문학권의 최대 문제작가의 대표 소설 소개. 예술인의 파티에서 벌어지는 허위와 위선에 대한 냉엄한 관찰이 주인공 '나'에 의해 이뤄지면서, 주인공의 30년의 삶이 4시간에 의해 압축된다. (현대문학選 2)

무의식의 판타지

D. H. 로렌스 지음/박화영 옮김 / 6,000원

20세기 영문학의 중심인물인 저자의 사상을 담은 에세이집은 국내에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이 책은 '무의식과 정신분석', '무의식의 판타지' 두 에세이를 묶은 것으로 저자의 신비스런 내면세계를 처음 드러낸다. (현대문학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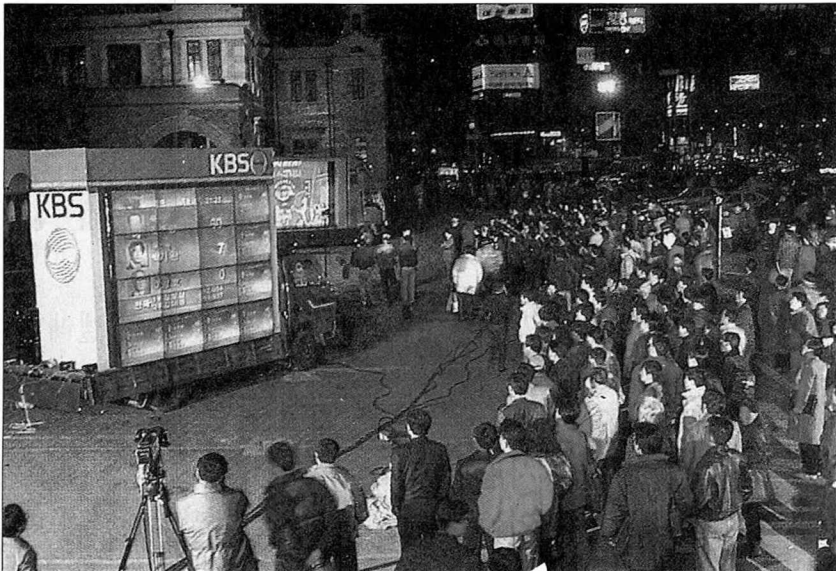
무대예술론

새뮤얼 셀던 지음/김진식 옮김 / 7,500원

무대예술의 핵은 연기, 춤, 노래를 종합하여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각화—디자인—하는데 있다는 것을 주장한 현대적 무대예술론의 핵심저서. 100여개의 도형은 그것을 선명하게 설명해 준다. 극장예술학의 첫번째 기초도서.

예술비평 · 이론
교육서 전문출판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07번지 대표전화 766-3527

현대미술사



책과 텔레비전의 관계는 한편으로 불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호적일 수도 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긴장하고 흥분하는 동안 모르는 척 거짓을 가장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게스트들은 공통적으로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것을 싫어한다.

책과 텔레비전간의 불편한 관계는 아마도 서로 기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데 이유가 있다. 출판인과 서적상들은 텔레비전을 광고 매체로 본다. TV가 책을 알리고 판매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좋은 텔레비전을 만드는 것이다. 때로는 이 두가지 태도가 조화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출판계 사람들은 그들의 책이 TV용으로 개작되는 것은 좋아하지만, 텔레비전이 그들의 책의 장단점을 평가

하고 토론하기 시작하면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이 그들의 구미에 맞는 각색물과 흥미위주의 쇼에만 만족한다면, 출판인들은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텔레비전이 다루어야 할 분야가 많이 있으며, 발견하고 탐험해야 할 세계도 훨씬 풍부하다. 'Face to Face'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저자 인터뷰, 바바라 뎀(Barbara Pym), JG 발라드(J.G. Ballard)와 같은 작가들에 관한 드라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문서 보관소의 이용, 필립 라르킨(Philip Larkin)의 생애와 작품간의 모순을 조명하기 위한 인터뷰 등은 좋은 결과를 낳았다. 폴 파울리코프스키(Paul Pawlikowski)가 밀턴 캐라딕(Milan Karadic)의 시에 관한 내용을 'Bookmark'용으로 만든 최근의 영화는 보스니아

에서의 인종 청소 정책의 유죄를 가장 야만적으로,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가장 우수하게 드러내어 TV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것이 문학적 다큐멘터리이다.

텔레비전은 책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동맹자로 보여야 한다. 출판계 종사자들에게 텔레비전은 약탈자가 아니라 친구로 보여야 한다. 텔레비전 프로듀서들이 책을 더 많이 읽고, 출판인들이 텔레비전을 더욱 많이 본다면, 둘의 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데렉 월코트(Derek Walcott),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ia Marques), 알리스 월커(Alice Walker), 마틴 암িস(Martin Amis), 존 반빌레(Jhon Banville)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시리즈 인터뷰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수용자들에게 소개해온 'South Bank Show', 안젤라 카터(Angela Carter)가 죽기 전 그녀의 작품 세계에 관한 가장 통찰력 있는 평가를 한 'Omnibus', 진 게넷(Jean Genet)의 비상한 세계를 파헤친 'Arena' 등이 그러한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좋은 텔레비전을 만들기를 원하며, 더욱 중요한 또 한가지를 원한다. 즉 시청자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문학적 모험을 향한 사랑과 열성을 키워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TV문학이 살아남으려면 출판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책에 할당하는 방송시간이 현재 정도로 지속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문학에 관한 토론은 시청률 전쟁에서 거의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문어(文語)의

세계가 점차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텔레비전과 책세계간에는 더욱 더 향상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광고 담당자는 전체적인 카탈로그보다는 더욱 구체적인 책에 프로그램의 타겟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 공동 제작 또는 공동 마케팅에 관한 시도가 연구되어야 하며, 훨씬 많은 협력 가능성이 탐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비평을 가까이 받아들이 필요 있다. 출판되는 모든 책이 보석일 수는 없으며,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완벽한 걸작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양자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좀더 자주 서로의 작품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책을 쓰건, 출판하건, 사건, 팔건, 또는 TV 문예물을 만들건 책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모두 같은 편이다. 우리는 우리 문화가 점차로 보잘 것 없어지고 진부해지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쓰고, 전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독서라는 사적 세계로부터 크리스탈 스크린을 통해 공공에게 공개되는 세계까지의 길은 항상 양방 통행길이다. 텔레비전 앞에 앉은 거대한 수용자들에게 문학에 대한 토론, 분석, 열정, 사랑을 심어 줄 수 있다면,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 헛소리, 그리고 컴퓨터게임 등의 대중적 문명 속으로 침몰해가는 문화를 살리는 데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 수 있을 것이다.

휴머니즘과 예술 철학에 대한 성찰

T. E. 홀 지음 / 박상규 옮김 / 6,000원
20세기 主知主義 문화론과 현대시에 있어 이미지즘 운동에 불을 당긴 대표적 예술철학서. 그간 절판되어 왔던 것을 역자가 수정·증보해 완벽하게 되었다.
(현대문학選 1)

반 미 학

할 포스터 편 / 윤호병 외 옮김 / 6,500원
이론바 반미학 혹은 포스트모던 이론의 전반적 방향을 과감하게 제시한 이 방면의 핵심저서. 1983년도에 발간된 이 책은 포스트모던의 아카데미즘화 내지는 대중화에 심대한 기여를 했고, 모든 앤솔로지의 母胎가 됐다.
(현대문학選 2)

아방가르드의 다섯 노총각들

칼빈 톰킨스 지음 / 송승자 옮김 / 7,000원
칼빈 톰킨스의 이 저서는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에 대해 그 계보를 날카롭게 추적·해설한 이 방면의 대표적 저서다. 마르셀 뒤샹에서부터 존 케이지, 머스 커닝햄에 이르는 5인의 전위 예술의 大家들의 예술적 특성과 삶이 명쾌하게 조명된다.

극마당: 기호로 본 극

미텐 예술린 지음 / 김문환·김윤철 옮김 / 5,500원
세계적인 연극학자 미텐 예술린의 근작. 연극의 핵심을 드라마(극)로 보면서, 그 드라마는 이제 비단 무대연극에서 뿐만 아니라 영화, TV극, 라디오극, 뮤지컬 등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작용한다고 본다.

예술비평 · 이론
교육서 전문출판

현대미술사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07번지 대표전화 766-3527